

---

제2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

일시 1959년3월13일(단기4292년) 상오10시30분

---

개회식순

1. 개식

1. 국민의례

1. 개회식(의장)

1. 인사(시장)

1. 만세삼창

1. 폐식

---

(10시 30분 개의)

○간사장 김형익; 지금으로부터 제29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일동 국민의례가 있었음)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부의장 이행득; 오늘 의장님이 지방에 갔다가 밤차로 어제 오셔서 피곤하고 또 몸이 불편하셔서 못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사람이 대신 개회사의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번 29회 임시회 개회는 의원 여러분이 수고하시고 있는 출납감사에 요먼저 28회 임시회에서는 25일까지로 했습니다 마는 지방자치법 24조 2항에 의거해서 임시회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서 자동적으로 12일까지는 우리 28회 임시회 회기가 끝막게 되고 다시 여러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29회 임시회를 다시 오늘 열게된 것입니다.

그 동안 출납감사에 의원 여러분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그 결과에 많은 결정을 맺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과연 여러분이 사심을 버리고 공심에서 글자 그대로 여러분이 수고하시는 것은 가정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건축을 짓는데 여러분의 사명은 기초가 되고 건물의 기초가 되고 주춧돌이 될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을 다하므로서 완전한 기초에 반석같은 주춧돌을 세워서 앞으로 건축에 확고부동한 건축이 될것은 물론 백년 천년을 가도 허물어지지 않는 이러한 완전한 건축이 되리라고 확신하여 맞지않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피로하시리라고 믿어집니다 마는 과연 여러분께서 부하된 사명과 책임을 다하도록까지 적극 노력하셔서 반석위에 세워지는 건물이 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합니다 마는 오늘 개회사의 말씀을 이상으로서 끝입니다.

○간사장 김형익;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부시장 신용우;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제29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몇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난번 회기때에 결의된 계획에 의하여 출납사무검사가 계속해서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일을 연이어서 시정 창달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건투가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로서 인사말씀에 대합니다.

단기4292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장 허 정

○간사장 김형익; 다음은 만세삼창 해주시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선창아래 일동 만세삼창)

개회식은 이로서 끝말고 곧 이어서 제1차 본의회를 이자리

에서 갖겠습니다.

(10시 35분 폐식)

---